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거생활

곽 인 숙 교수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주택전공)

## 1.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일까?

실패한 대통령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된 지미 카터, 남들은 은퇴할 일흔의 나이에 KFC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영화배우에서 파킨슨병 재단 설립자로 거듭난 마이클.J.폭스, 인생의 절정기를 지난 나이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든 사람들...

아마도 이들의 노후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이 듣는 말중의 하나가 '성공적 노화'이다. 어떤 삶이 성공적인 것일까? 개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누구나 공감하고 자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2010년에는 노인인구가 4백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통계청, 2000), 이러한 노인들은 건강과 사회경제적 상태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므로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노인들은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노후준비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준비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시기이므로 노년에 대한 설계와 준비도 없이 퇴직은 맞은 사람에게 은퇴후의 인생이 괴롭기만 하다. 시간이 많아지는 노인기에는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즉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서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취미개발 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노후를 대비한 재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화란' 어떤 것일까?

노년기는 정체되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은퇴 이후의 기간은 성인

기의 절반 정도(인생 80만시간 도래?)를 차지하는 긴 시간이므로 노후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의 잠재력과 한계를 파악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에 그리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젊은 날에 받은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면, 나이든 사람들도 여생을 활기차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지미 카터, 1999).

맥아더 재단의 연구에 의해 노화는 고통스런 쇠퇴의 과정이라는 시화를 벗겨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전의 영향보다는 사회적, 신체적 습관이 신체와 건강에 점점 더 통합적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가 노년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유전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므로 성공적인 노화는 통제가능한 것이며,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의존되는 것이다. '보통의 노화(usual aging)'는 특별한 질환이나 기능장애는 없지만 연령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하강적 변화들로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적 세계의 축소로 고독하고 활기차지 못한 날을 보내는 노년의 모습이다. 반면에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는 이런 일반적 노화를 개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즉 개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가 결정된다(Rowe & Kahn, 1998).

성공적 노화는 은퇴 이후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질병이 없고,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성공적으로 지속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인생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의 개발이 요구되는 과정이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준비이외에 노년기에 대한 적응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대안을 점검해보고, 수많은 재가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지역마다 생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문화의 집) 등이 지역사회의 재가노인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락위주의 프로그램만이 아닌 바람직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2. 노후에 어디에서 살까?

노후에는 누구와 어디에서 살까? 부부만,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 우리의 부모세대에서는 당연히 노인은 자녀 그중에서도 장남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부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노인들 스스로도 누군가에 의해 부양받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현재의 중장년층은 노후에 기혼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보다는 부부만이 함께 살고, 자녀들은 가까이에서 살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2년 6-8월, 5~10년 내에 노인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만 50세-59세까지)의 중년층 6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거주유형

노인이 되었을 때 거주하고 싶은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 부부의 건강이 양호할 때는 응답자의 80.9%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자녀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일반주택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같이 한 가구를 위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노인용공동주택에 입주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18.4%였다. 노인용공동주택이란 노인의 제한된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특별히 계획된 노인주거단지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건강할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부부의 건강이 불량해질 경우에는 요양원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36.7%로 낮아져 이제는 일반주택이 과거와 같이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 것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용공동주택을 희망하는 경우도 26.1%로 건강한 경우보다 증가하였다. 노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었을 때 희망하는 거주유형은 일반주택(50.9%)과 노인용공동주택(45.6%)을 희망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용공동주택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면계획에서 배려되어야 하며, 부부중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노후에 혼자 된 노인들을 위한 1인용 개인실도 거주공간에 함께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거주유형

N(%)

(노후에)	일반주택 (단독, 공동)	노인용 공동주택	요양원	총계
건강이 양호할 때	474(80.6)	110(18.7)	4(0.7)	588(100.0)
건강이 불량할 때	215(36.6)	152(25.9)	221(37.6)	588(100.0)
혼자 되었을 때	296(50.3)	271(46.1)	21(3.6)	588(1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한국보건사회복지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10명중 8-9명은 노인성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21%인 80여만명은 치매 증풍 등에 걸려, 목욕, 세수, 옷갈아입기, 식사를 혼자서 하기 힘들어 요양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중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보호를 받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22,500명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요양보호자가 16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에 비해 노인의료 를 담당할 시설이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전북일보, 2003. 9. 8).

그러나 선진복지국인 스웨덴이나 덴마크,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로 요양원(nursing home)이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는 전체 노인인구의 10% 이내로 대부분의 노인이 일반 가정집이나 자신이 원래 살던 집에 머물러 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92%, 덴마크의 경우 95%, 미국의 경우 95%가 일반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의 문제를 모두 시설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상의 문제와 노인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4시간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중증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원의 수도 증대시켜야 하나, 대부분의 노인이 희망하는 자신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 중년층의 노인주택에 대한 인지도와 입주할 의사

중년층은 노인주택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만약에 경우 입주한다면 어떤 형태의 노인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 표 2>와 같다.

노인주택중 가장 많이 인지도가 높은 것은 실버타운과 양로원, 요양시설 등이었으며, 그외의 노인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60%정도가 들어본 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위주의 양로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주택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에 대한 홍보와 보급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노인주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중년층이 만약에 노후에 입주한다면 어떤 종류의 노인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는 집단이 가장 많아 43.7%였으며, 다음으로는 노후용 공동생활주택(22.2%),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17.2)였다.

<표 2> 노인주택에 대한 인지도와 입주할 의사

N(%)

노인주택의 종류	인지하는 사람	입주의사가 있는 사람
3대 동거주택	234(39.0)	-
노인용 코하우징	99(16.5)	59(9.8)
노후용 공동생활주택	179(29.8)	133(22.2)
실버타운	477(79.5)	262(43.7)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	105(17.5)	103(17.2)
요양시설	403(67.2)	43(7.2)
양로원	451(75.2)	-
치매노인 그룹홈	208(34.7)	-

### 3) 노후의 주거문제의 해결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의 주거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노인 자신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가나 사회라고 응답한 집단이 34.7%였으며,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는 7.8%로 아주 적었다. 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주 낮아졌으며, 자신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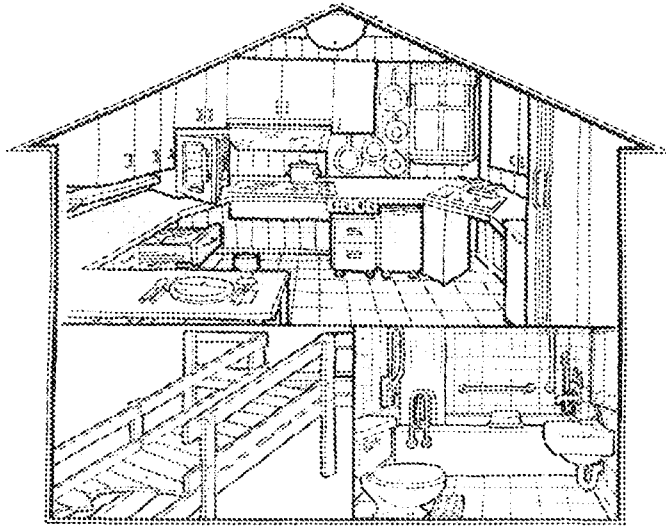
<표 3> 노후의 주거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구 분	N(%)
노인 자신	318(53.2)
자녀	47(7.8)
국가나 사회	208(34.7)
모르겠다	27(4.3)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노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주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후공간이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실버산업체에서도 다양한 노인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주거문화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한 가능한 노후주거공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A. 일반주택, 일반 아파트 ;** 노인의 경우 주거환경의 변화는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므로 되도록 익숙한 곳에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택에서 노후에도 생활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아주 위험한 거주공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을 위해 주택의 진입부분을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설치해 주거나, 욕실에는 변기 주변에 손잡이대를 달고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사용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욕실의 턱을 없애고 욕실 출입구의 문을 넓히거나, 노인을 위한 수도꼭지나 샤워를 위한 의자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즉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상담하거나, 실비로 개조공사를 해주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가구에겐 무료로 개조 및 수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에게는 노인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고립감과 고독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을 통해 낮시간의 노인부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B. 3대 동거주택** ; 직계가족인 노부모, 자녀부부, 손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유형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3대 동거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주거공간에서 3대가 함께 기거하는 것을 희망하는 중년층의 수는 많지 않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접한 독립된 두 개의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6.2%, 침실과 욕실만 따로 사용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36.2%였다.

<표 4> 3대 동거주택에서 노부모와 자녀세대의 공간계획

구 분	N(%)
침실만 따로 사용	60(10.0)
침실과 욕실만 따로 사용	217(36.2)
침실, 욕실, 거실, 식당 따로 사용	23(3.8)
침실, 욕실, 거실, 식당, 부엌 따로 사용	23(3.8)
인접한 독립된 두 개의 주택에서 생활	277(46.2)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3대 동거형아파트의 경우 크게 수평동거형, 수직동거형, 수평인거형으로 나눌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급된 수도 적고 호응도가 낮다.

외국의 3대 동거주택의 새로운 형태로서 개발된 액세서리 주택과 에코 주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다.

① 액세스리 주택(accessory dwelling units)

액세스리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에 부수적인 아파트를 추가한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3대동거형 주택이다. 액세스리 주택에는 독립된 부엌과 욕실, 출입구가 있어서 그 자체로 완성품이고 분리된 주택이다. 이 주택을 미국에서는 "시어머니의 집(mother-in-law unit)" , 또는 "둘째 집(second units)"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집들은 액세스리 아파트(accessory apartments)와 액세스리 오두막(accessory cottages)을 통 털어서 지칭하는 것이다. 액세스리 오두막은 전형적으로 주 건물에서 떨어져 따로 짓거나 또는 붙여서 짓지만, 붙여서 짓는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주 건물과는 독립되어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 붐(baby boom)"에 이어 현재 "빈 둥우리 세대 붐(empty-nester boom)"을 가져왔고, 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단독주택의 1/3정도가 5개 또는 그 이상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 당 거주인 수는 2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미국 단독주택의 1/3 가량이 액세스리 아파트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액세스리 아파트는 일반 임대주택 건축비의 1/3 가격만 들이면 지을 수 있다(Hare, 2000). 액세스리 아파트는 부수적인 수입과 안전성을 보장해 주며 이웃이 있어 적적하지도 않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세를 받는 대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등의 교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노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액세스리 아파트를 가지고 서비스와 안전성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익하다. 그리고 수입이 부족한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길 때까지 액세스리 아파트를 임대하여 용자금을 갚을 수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주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유익하다.

조사에 의하면 액세스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반 정도가 임차자가 아니라 가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흔히 성인 자녀와 사는 노부부이거나 반대로 노부모의 빈 둥우리로 다시 돌아온 성인 자녀인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액세스리 아파트의 중요한 이점은 이 주택이 어느 단계의 생애주기에도 맞도록 융통성 있게 디자인되었다는 점이다.

② 에코주택(ECHO Housing)

에코(ECHO: Elderly Cottage Housing Opportunity)란 노인용 오두막이며 세대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짓는다. 이 주택은 작고 이동할 수 있어서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자녀의 집 뒷마



당에 임시로 짓고 성인 자녀가 연로한 노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에코주택을 요양원 옆에 지으면 건강한 배우자가 요양원에 입주한 다른 배우자와 가까이 살수도 있다. 에코주택은 사회적 부양제도를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그러나 에코주택을 지을 때 종종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이 주택이 용도가 없어진 후에도 빨리 철거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에코 주택의 설치 구역에는 특별규제가 마련되어, 1~2년마다 개조를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에코 주택을 본 주택과 다른 색과 디자인으로 만들어 용도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새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에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 즉 주택조합이나 병원이 가지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이 에코 주택의 용도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철거된다(Hare, 2000). 에코주택, 즉 그레니 플랫은 호주에서 성공적인데, 노인 자산이 30,000불 이하인 경우에 정부 주택으로 그레니 플랫을 시(市)에서 대여 받아 사용하다가 노인이 사망 후에 반납한다(이영심·이상해, 2002).

**C.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협동주택)** ;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후세대들이 모여서 한 주거단지 안에 편리한 공동생활시설과 소규모의 개인주택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취사, 식사, 주택단지관리, 취미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자치운영하며 생활함으로써 활동성과 독립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일종의 협동주거이다.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고독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돕고 살았던 옛날 마을의 개념과 비슷한 새로운 주거대안을 마련한 형태로 코하우징의 일종으로 주민이 대부분 50세 이상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노인용 코하우징은 20여 전에 처음으로 코펜하겐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노인들을 위한 주택 대안이 단지 두 가지; 한 가지는 고독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사는 방법, 또 하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싫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양로원에서 사는 방법뿐이었다. 양로원에서는 매사에 있어서 개인으로서의 결정권이 없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야 한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통하여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기간을 더 늦추거나 때로는 전혀 입주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덴마크의

노인들은 노인용 코하우징의 개척자로서 지방정부 당국, 주택조합, 그리고 다른 노인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은 코하우징이 낯설지만 앞으로 코하우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노년에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노인용 코하우징을 주거대안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D. 노후용 공동생활주택(생활지원주택) ;** 노후에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소규모 집합주택으로 개인공간에는 침실과 부엌, 거실이 있어서 개별 식사준비가 가능하다. 그 외에 공동부엌, 공동식당, 공동세탁실, 손님방 등이 있고 또한 생활을 지원해주는 관리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여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영국의 경우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이라고 부르며, 유형에 따라 서비스 지원정도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생활지원주택(assisted living)이 이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지원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생활지원이 수행된다. 영국의 보호주택은 1형(지역경보장치만 있는 개인주택), 2형(한지붕 아래 집합되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공동공간과 관리인이 있다), 2.5형(초보호주택으로 2형의 서비스이외에 식사제공과 가사지원이 있다)이 있다.

**E. 실버타운 ;** 미래 노년층인 중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와 더불어 여가, 레저, 문화,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과 자신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며 가사노동과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주거단지이다.

**F.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 노후에 모여서 한 주거단지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과 공간이 마련된 노인주거이다.

노인은 소득이 필요해서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해 일하고 싶어한다. 노인취업을 돕기 위해 고령자취업촉진법도 만들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노인들의 노인시장 참여는 원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터가 있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노인주거시설안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각자 또는 함께 일하면서 살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노인주거 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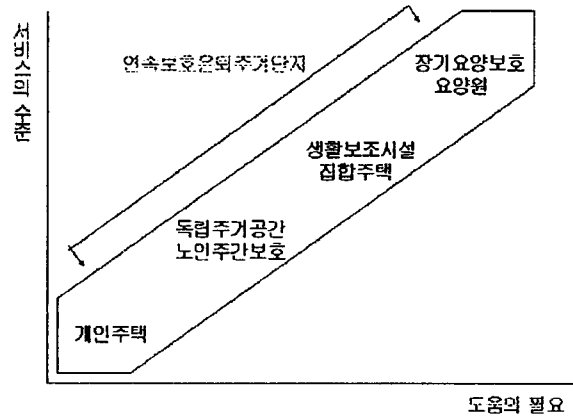
일할 능력과 욕구가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주거시설내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노인들이 자긍심과 자아신뢰감을 키우고 경제적 자립도 증대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농장이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공동작업이 있는 곳은 한곳뿐이며, 대부분 주변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인주거시설의 한 대안으로 개발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G. 요양시설(nursing home) ;**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후에 일상생활의 자립적인 유지와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와 간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전문적인 간호가 1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제공이 가능하며, 개인적 보살핌, 치료, 의료적 감독, 영양관리, 계획된 활동, 사회적 서비스, 방, 식사제공, 세탁 등을 제공한다. 집단과 개인을 위한 사회적·여가적 활동을 제공한다. 자격을 가진 간호사에 의해서 전문적인 돌봄이나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주사맞기, 인공산소호흡기, 부상당한 상태에서 옷갈아 입히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AARP, 2000d; BBB, 2002). 개인의 침실공간이 제공되고, 거실이나 부엌, 식사공간, 목욕 공간 등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다양하며, 미국의 경우 비용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의해 지원되지만 1인에게 1년간 지원되는 비용이 평균 8만불이 될 정도로 의료보험분야에서 아주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COPC Central, 1999).

**H. 연속보호은퇴주거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 1960년대 중반에 기존의 전통적인 은퇴주거단지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인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위한 투자대상으로 개발되었다(Sommers, 1992). 기존의 노인보호시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노인의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적 상태와 질병의 진행,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노인이 심각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이 진행되면 요양원을 고려하게 되는데, 새로운 주거환경으로의 이주는 노인에게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곳은 노인을 위한 숙소와 서비스를 총망라한 단지로 계획되고 관리되며, 독립주거공간(independent living facility), 생활지원주택(assisted living facility), 요양원(nursing home)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속보호은퇴주거단지에 대한 정의는 "전반

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주서비스와 건강보호를 겸한다. 이는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구가 변화하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Sanders, 1997). 연속보호은퇴주거단지는 개인이 늙어가면서 거치는 다양한 단계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필요로 하는 3종류의 주거를 모두 포함한다.



〈연속보호은퇴주거단지의 개념〉

이 단지는 거주자에게 건강과 간호를 추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문화적인 면을 거주자의 삶에 통합시켜 준다. 건강하게 외부 도움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는 개인주택에서 생활하지만 신체 기능이 약화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낮 시간에 노인을 잠시 맡아주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은퇴주거단지와 같이 노인을 위해 계획된 독립주거시설(Independent living facility)에서 생활하게 된다. 노인의 건강악화로 더 이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보호적인 관찰과 감독이 수행되고, 부분적인 개인적 돌봄이 제공되는 생활지원주택이나 집합주택에서 생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능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게 되면 요양원이나 장기요양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 내에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곽인숙, 2002). 그러나 연속보호은퇴주거단지의 경우 입주초기 비용이 비싸고, 매달 지불하는 비용이 비싸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AARP, 2002d).

I. 치매노인그룹홈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치매노인 6-8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며, 상주하는 치매전문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일상생활에 참여시키며, 그룹홈에는 욕실이 있는

방이 개인별로 제공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과 거실이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이 자유롭다.

스웨덴에서는 1992년 이후 치매노인을 각종 노인시설 또는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던 정책을 바꾸어 치매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룹홈(group home)은 그 중의 하나이다. 치매노인 그룹홈은 방향감각의 상실과 무작정 배회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으로 6-8명 노인들이 훈련된 직원들로부터 급식, 가사, 생활기능 회복,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일반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갖는다(최정신, 이언 폴슨, 2002).

치매노인 그룹홈의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로서, 그 하나는 일반 노인시설과 같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공간에서 인지기능에 손상이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함으로써 정체성, 안전성, 자신감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인들이 살던 지역에 계획함으로써 친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는 노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이나 친척, 이웃의 방문을 유도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부 운영되고 있는 치매노인 그룹홈은 대부분이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개인 또는 민간기업이 유료로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치매노인 그룹홈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 그룹홈이 매우 적은 형편이지만 민간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치매노인과 그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볼 때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거대안이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 3.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노인층은 지역주민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며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재가노인들이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교류,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고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통해 노후의 삶이 의미있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활동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정보·상담 영역, 건강·운동 영역, 여가·문화 영역, 교육 영

역, 자원봉사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영역은 노인의 삶에서 서로 다르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위의 영역을 고르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상담 영역은 노인층이 정보에 소외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획득과 오락이 가능해진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인간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한 컴퓨터교실(인터넷, 전자우편의 사용), 노인문제상담(건강, 가족관계, 노후적용, 주거, 가계, 세무) 등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건강·운동 영역은 노후의 건강한 신체유지 및 심신단련을 통한 자신감,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동년배간의 우애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검진(비만도 측정, 운동처방), 물리치료(발관리, 수지침, 기능회복실), 생활체육교실(단전호흡, 요가,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여가·문화영역은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시켜 주고,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노래교실, 미술·공예강좌, 원예, 취미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교육영역은 노인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교양시사강좌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계획이나 적응관련 교육, 언어교육 등을 통해 치매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은퇴계획강좌, 언어교육, 생애학습, 자원봉사자교육,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용 등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사회참여영역은 과거의 직업에서 쌓은 전문지식이 기술의 활용으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공공행정업무, 탁아방, 어린이 교육, 학교봉사, 사회봉사) 환경감시, 불우이웃돕기 등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

영역	프로그램의 기능	추천 프로그램
정보·상담영역	노인층이 정보에 소외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획득과 오락이 가능해진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인간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하다.	컴퓨터교실(인터넷, 전자우편의 사용), 노인문제상담(건강, 가족관계, 노후적응, 주거, 가계, 세무)
건강·운동영역	노후의 건강한 신체유지 및 심신단련을 통한 자신감,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동년배간의 우애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건강검진(비만도 측정, 운동처방), 물리치료(발관리, 수지침, 기능회복실), 생활체육교실(단전호흡, 요가, 에어로빅)
여가·문화영역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시켜 주고,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다.	노래교실, 미술·공예강좌, 원예, 취미교실
교육영역	노인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교양시사강좌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계획이나 적응관련 교육, 언어교육 등을 통해 치매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은퇴계획강좌, 언어교육, 생애학습, 자원봉사자교육,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용
사회참여영역	과거의 직업에서 쌓은 전문지식이 기술의 활용으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공공행정 업무, 탁아방, 어린이 교육, 학교봉사, 사회봉사) 환경감시, 불우이웃돕기

#### 【참고문헌】

- 곽인숙(2001), 미국의 연속 보호은퇴주거단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91-106.
- 곽인숙(2002),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가족부양현황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3-26.
- 이영심·이상해(2002), 호주 멜버른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주거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03-114.
- 저미 카터(1999) [나이드는 것의 미덕], 김은령(옮김), 이클리오
- 최정신, 이연 폴손(2002), 덴마크 자치관리형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 2002년도 제57차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통계청(2002), 인구 및 주택 센서스.
- AARP(2000d), *How to Select A Nursing Home*, AARP, Washington D.C.
- AARP(2002b). *Does Your Home Meet Your Needs? A Checklist*, <http://www.aarp.org/universalhome/checklist.html>
- BBB(2002). *Housing Solutions for Seniors*, <http://www.newyork.bbb.org/library>
- COPC Central(1999), *COPCs and the Elderly Face Growing Challenges Together*, 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s, Rockville, MD.
- Hare, Patrick H.(2000), *ECHO Housing*, Edited by Wliet, **The Encyclopedia of Housing, Sage Publication**, 129-330.
- Hare, Patrick H.,(2000), *Accessory Dwelling Units*, Edited by Wliet, **The Encyclopedia of Housing, Sage Publication**, 3.
- Partick H. Hare(2002). <http://www.aoa.gov/housing/accessory.html>
- Rowe J. W. & Kahn, R. (1998) 최혜경, 권유경 (공역, 2001), 성공적인 노화, 서울: 학지사.
- Sanders, J.(1997),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A background and summary of current issues*, Office of Disability, Aging and Long-Term Care Policy with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omers, A. & Spears, N.L.(1992), *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New York, Springer.



## 주거 측면에서의 성공적 노화

이 민 아 교수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가족아동전공)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비단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개인이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물리적 환경과의 충돌, 혹은 상호 조절 및 통제 문제이다. 이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거생활"이라는 주제의 발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노인주거관련 연구를 종합 고찰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주거형태의 다양한 대안을 정리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노인주거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1.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1960년대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이상적인 노화의 과정 개념을 개발해 왔다. 1980년대 까지 성공적인 노년은 "평균 수명 연장"과 관련되어왔으나, 최근에는 "활동 수명의 연장"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노화가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의존하여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며, 자기개발과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좀더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에서 성공적 노화는 순환적 인생 설계(Cyclic Life Plan)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선형 인생설계(Linear Life Plan)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가족의 형성, 결혼, 경제활동, 여가활동, 교육 등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과업은 그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수명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개인의 관심사와, 자원, 기술에의 접근기회가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은퇴 후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황혼결혼, 혹은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2. 노인주거 (Housing for the Elderly)

발표자는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거나, 혹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주거의 대안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실버타운과 양로원 요양원 정도의 시설만이 알려져 있을 뿐 그 외에는 그 개념조차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해도 개념적인 설명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용 코하우징"이나 "치매그룹 노인홈" 등은 우선적으로 명칭에 있어 신체적으로 특별하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그에 걸맞은 특수한 보호를 받기위해 입주하는 주택이라는 느낌이 있으므로, 명칭을 실버타운과 같은 식으로 완화시킨 후 지역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 대안에 대한 개념적인 홍보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다 거부감 없이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호응을 얻어온 선진국의 노인주거들도 때때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ECHO주택이 용도가 없어진 후에 빨리 철거하지 않는다면, 이외에도 친척이나 부모가 아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유료노인주거의 경우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또한, 연속보호은퇴주거단지의 경우 노인의 신체적 상태나, 요구되는 서비스 등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노인주택에서부터 요양원까지 모든 주거대안을 제공하여 낮은 환경에의 적응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출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선진국의 많은 사례시설들이 입소노인 유치의 실패 등의 이유로 인해 그 용도를 전환하거나, 더 이상 단계별로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을 한 대지 안에 갖춘 몇몇 연속보호은퇴 주거단지의 경우, 양로시설에서 오랫동안 머물던 노인들이 바로 옆 동의 요양시설로 이전해야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거부한 채 특별 케이스로서 그대로 양로시설에 머물면서 요양시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즉, 한 단지의 시설들이 각기 따로따로 입소노인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건설된 연속보호은퇴 주거단지는 본래 의미인 "친밀한 환경에서 단계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필요한 노인주거시설을 넓은 대지에 한꺼번에 모아 두어 지역의 노인과 주민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고, 지역의 주요 행사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타운을 건설하여 행정적인 취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을 볼 때 외국의 주거대안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용시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3. 주거의식(Attitude toward Housing for the Elderly)

발표자의 질문지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중년층이 노후에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며, 건강이 불량한 경우에 요양원과 노인용 공동주택에의 거주 의사가 도합 60%를 넘고 있다. 또한 노후의 주거문제 해결의 책임은 노인 자신이라고 답한 집단이 53.2%로 높지만, 이는 향후 거주 의사 및 태도일 뿐 실행의 측면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입주 의사가 있는 시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실버타운을 보더라도 이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노후 주거는 노인들을 위해 특별하게 지어진 그들만의 주거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오히려 나의 집을 떠나 많은 돈을 내고 선택한 만큼 현재보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적인 측면에서 더욱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가의 유료노인주거를 일반 노인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무료시설을 이용할 생활보장대상 자격이 주어지는 노인 또한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중산층 노인의 은퇴 후 주거생활, 혹은 전문 요양이 필요할 경우의 주거대안이 매우 큰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4%만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으며,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1.7%, 미국은 5.1%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노인주거의 개발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 중년층이 일반 주택에서의 거주를 희망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껏 정부가 유지시켜왔던 "선가정후사회"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제한된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노인이 일반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4. "거택"(Aging in Place)

많은 선진국들이 노인주거정책을 예전의 노인수용보호 정책에서 지역사

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주거의 대안으로서의 대부분의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거택(Aging in Place)"의 개념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 이는 노인을 위한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축 설계자를 비롯한 실버 산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문제로, 즉, "생애주택(Life Span House)" 식으로 가족의 생활주기가 변화하여도 이에 대응하는 적응력이 있는 주택을 개발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최근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용어인 "집과 유사한 (Homelike)" 환경을 최소한 구비해주어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집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것은 단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에서의 편안함을 설계자가 제공해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주어진 공간에서 노인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같은 분위기로 꾸미거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여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을 최소한도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한편, 거택(Aging in Place)의 유지를 방해하는 여러 불안요소들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갑자기 움직이기 어렵게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동거하는 가족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의료 기구를 사용하기에 이 집이 적당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이다. 이는,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이, 특히 독거노인이 집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비상연락 체계 (Community Alarm System)"와 노인이 가족, 친지와 한 집에서 살되 별도의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ECHO 주택", 그리고 노인의 노화에 따라 주택의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실비로 개조해 준다거나 하여 노인의 자립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주택관리 및 수선 프로그램(Care and Repair program)" 등이 선진국에서 거택(Aging in Place)을 위해 실시해온 프로그램들이다. 또한, 은퇴 후 대부분의 노인들이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대여 받는다거나 주택의 일부분을 파는 등의 "부동산 활용 프로그램(Equity Release Program)"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 거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서 노인여가 프로그램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지역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거택노인들의 서비스 전달 공간으로서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주간보호센터 등은 교육 및 정보 상담 서비스에서부터 자원봉사참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노인이 은퇴 후 본인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또 올바른 여가활용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서 주거지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점차 다양해져가는 노인들의 생활내용을 고려한 지역 근린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역사회에 근린시설, 특히 취미/여가시설 등은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노인들조차 근린시설의 활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인지되어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노인의 경제력과 건강을 고려한 근린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와 전체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노후 누구와 함께 어디서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계획적 접근과 시도가 필요한 분야이다.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다양한 노인주거 정보와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노후 주거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고, 나아가 현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각종 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둔 정부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노인주거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거택(Aging in Place)에 대한 연구가 좀더 활성화되어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많은 노인주거 대안이 개발되길 바란다.